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 초등학교 교장

효심을 기르는 추석 명절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경자(庚子)년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다. 올해 추석은 10월 1일인데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하면 추석 연휴는(9월 30일~10월 4일) 5일간 쉬는 날이다. 추석 공휴일이 3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해서 5일이 연휴로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민족의 이동을 자제하고 각자 집에서 연휴를 보낼 것을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걸린 현수막에 “흠어들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와 “불효자는 옴니다.”가 이색적이었다.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효도란 의미이다. 설날과 추석 날은 3일간 쉬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고 송중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을 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래풍습

에 의한 추석의 전통놀이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 농경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조상이며 하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다.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풍속은 추석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 명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 추석날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벌초하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

상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 다.

추석(秋夕)의 유래는 신라 시대 길쌈놀이인 가배란 별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가위로 변했고 예기(禮記)의 춘조월 추석월(春朝月 秋夕月:봄엔 아침 달, 가을엔 저녁 달)에서 추석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고,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해서 중추(中秋)요, 가을이 한창 때 명절이라고 해서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농경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다.

올해의 농사는 바비, 마이삭, 하이난의 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다. 고향으로의 민족 대 이동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나온 우리 과거가 전쟁과 가난, 산업화로 말미암아 노동력 인구가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향을 등졌기 때문일 것이며 타향살이가 고향을 수록, 고향을 떠나올 때의 설움이 깊을수록 망향의 한이 사무쳐, 길가에서 한나절을 부대끼며 낱밤을 새우더라도 귀성 대열에 끼여 밤속의 고향을 향해 귀향길의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도 부모와 조상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으며 고향이 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모 조상과 고향에 대한 할 일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효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추석 한가위 명절이 되어야 한다.

고향에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고향에서 얻은 물질 심적인 선물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길에 오르게 된다.

추석 명절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에게 효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충전해주는 명절로써,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절로 자리를 잡아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올해 추석은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안부를 전하고 택배 문화를 이용해 오가는 정성이 전달되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사설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위해 경찰 버스를 세워 전면 통제했다.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앞서 현재는 지난 2011년 A씨 등 참여연대 간사들이 “서울광장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벽을 세워 광장 진입을 봉쇄한 바 있다.

현재는 “통행 제한 행위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

취할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는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의 결정 이후에도 차벽은 여러차례 설치되었다고(故)백남기 농민이 참여한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도 차벽이 설치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차벽이 세워졌다.

광화문광장에 차벽에 세워진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의 감염병 위험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전국에서 모인 이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경찰의 대응은 어쩔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도 서울에서 진행예정인 신고된 집회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수개월간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집회는 철저히 되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물단지라 보물단지로 바꾸자

사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보물단지라 될지 애물단지가 될지 잘 모른다.

돈 좀 주고 샀어도 꾸준히 애용하면 제값을 하는 것이고, 세일 또는 광고에 혹해서 샀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집에 손님이 와도 간단하게 밖에서 사 먹는 일이 잦으면, 무엇보다 주부가 부엌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 살림살이가 보물단지도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확률이 높다.

가을철이 되면 울긋불긋 피는 단

풍은 사람의 감성을 돌이킬 수 있어도 떨어져 뒹구는 낙엽은 보는 사람마다 다 감성이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볼 것이며 다른 이는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미래를 생각하고 가을의 정취를 맛보는 감성으로 볼 것이다.

먹는 음식 모두가 알 맞는 방식으로 먹여줘야 뒤탈이 없고 살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헤어진다. 그 수십 명 중 나는 이로운을 주는 대상인지 악취 나는 쓰레기같이 해로움을 주는 사람

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한편 뿐인 인생길 살아온 삶을 뒤돌아 봐도 회한이 없도록 배려하며 봉사하고 아픈까지 사랑하며 내일보다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 나도 가을 떨어진 낙엽처럼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살아가 보자.

사람마다 각자 특성이 있다. 다 잘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각자가 일을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쓸모 많은 사람이 되려면 많은 노력과 지식, 경험들이 필요 한데 지레 겁부터 먹고 걱정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 각자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행복을 갖고 진한 참기름 같은 고소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

자. 겁먹지 않을 것이고 파이팅 넘치는 내가 될 것이다 하고 매일 다짐하면서 생활해 보자.

요즘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에서 실적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건강하게 활동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사회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인 나라로 급부상 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일 수록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 인생으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를 앞날에는 희망과 미래의 밝은 서광이 빛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종균/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원담당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 일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우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